

## 살아난 기호 2번 ... 기초선거 '공천전쟁'

국민·당원 조사 53.4:46.6  
새정치, 기초공천 최종 결정  
광주·전남 후보 엇갈린 반응



**무등산 명산체험** 10일 무등산에서 열린 '2014 장애인·청소년 우리지역 명산체험' 행사에 참석한 은혜학교 지체장애 학생과 신광중학교 학생이 조를 이뤄 함께 산을 오르고 있다. 우리지역 명산체험 행사는 광주일보사와 산림청, (사)광주학교,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주최하며 봄과 가을에 모두 4차례 진행된다. ▶ 관련기사 7면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이 애초 당론을 뒤집고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기초선거 공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련기사 3·4·5면>  
특히 지방선거를 55일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뒤늦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급선회함에 따라 옛 민주당 출신과 안 대표측의 통합에 따른 후보 지분 배분 논란 등 공천작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 무공천 당론을 뒤집고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남 하루동안 전(全)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 여부를 다시 묻는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46.56%로 나와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이날 오전 공식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무공천 방침을 전격 철회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최형식 담양군수 예비후보, 서종진·송경중·송병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이철원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등은 이날 일제히 "정당공천 확정을 지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신기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측되는 폐단을 낳았다"면서 호남에서만이

라도 무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갑수 화순군수 예비후보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특성상 조직과 금권, 중앙당 인맥 동원 등의 폐해가 있는 만큼 7만 군민이 직접 군수 후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화순군수 예비후보 모두가 무공천 선거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4 지방선거 광주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명분의 하나인 기초공천 폐지를 원점으로 되돌림으로써 정치개혁의 의지가 퇴색했다"고 지적한 뒤 "광주에서부터 기초공천제의 폐해를 극복할 개혁 공천을 통해 새정치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 새정치 광주시장·전남지사 21~24일 경선

광주, 여론 21·22일, 공론 23일

전남, 여론 22·23일, 공론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5일 경남지사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시작으로 경선일정에 돌입,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오는 21~22일 여론조사를 한 후 23일 공론조사 현장투표를 한다는 내용의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또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 오는 22~23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날인 24일 공론조사 현장투표를 하기로 했다.

전북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 24~25일 여론조사, 26일 공론조사 현장투표의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이같은 경선 일정은 '여론조사 50% + 공론조사 50%' 방식의 경선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는 제외하나

지역	여론조사	공론조사 현장투표
광주시장	21·22일	23일
전남지사	22·23일	24일
전북지사	24·25일	26일
충·지지사	제외	포함

\* 공론조사 선거인단  
남녀 5대5, 45세 기준 위 60% 아래로 40%

공론조사 선거인단에서는 제외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정당을 물어 새누리당 지지자는 제외하지만 공론조사 선거인단을 추출하는 설문에서는 지지정당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론조사 선거인단의 경우 남녀 '5대5' 비율로 뽑고 연령대는 45세를 기준으로 위 60%, 아래로 40%를 할당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현실적으로 젊은층의 선거인단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연령대별 인구 기준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림**  
제41회 光州보훈대상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光州보훈대상의 올해로 41돌을 맞이합니다. 光州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뜻있게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모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 포상 추천 대상자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자립에 성공한 사람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 중상이지자의 배우자로서 중상이지자의 정신적·신체적 지주가 되어 삶의 의지와 보람을 갖도록 조력한 사람

■ 접수: 2014년 4월 18일(금)까지  
■ 발표: 2014년 6월 6일(금) 광주일보  
■ 시상: 5명(상금 각 100만원 및 부상)  
■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오후 3시  
■ 장소: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강당  
■ 문의: 광주지방보훈청 모호과 (062-975-6644)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인류의 미래를 향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오늘 개막

완도항 일대 한달간 열려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Wando Seaweeds Expo 2014)'가 11일 오후 6시 30분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장정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3면>  
전남지역 군 단위로는 최초의 세계적인 벤트인이다 지역 특산물인 해조류의 국내외 시장 개척은 물론 해조류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년의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친만큼 어느 박람회보다도 '성공 개최'의 가능성도 높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1일 오후 완도엑스포벨트 주무대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정승 식품안전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해조류박람회 공식 개막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개장식에 이어 인순이, 제국의 아이들, 박현민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는 멀티미디어쇼와 '2014 인분 미역국 배식행사' 등도 예정돼 있다.

완도해변공원과 완도항을 중심으로 하는 주행사장과 장보고 유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행사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완도엑스포벨트는 전체 면적만 9만7310㎡로, 주제관, 생태환경관, 건강식품관 등으로 구성됐다.

완도엑스포벨트에서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12일 공군 블랙이글에어쇼, 13일 운도현밴드 라이브콘서트가 열리는 등 박람회 기간 동안 모두 245차례의 크고 작은 공식행사가 계속된다.

완도군은 해조류 박람회 기간에 맞춰 이달 한 달간 청산도 슬로우걸 축제와 열리고, 지난날 신지명사십리 오토캠핑장을 개장하는 등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연계 관광프로그램도 가동했다. 군은 다만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교통 부문일 것으로 예상하고, 공설운동장 등 3곳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해조류에 관한 모든 것으로 보여주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 만큼 많은 관람을 부탁드린다"면서 "다만 교통 지체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 완도=정은주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교통사고를 획 줄이기 위하여 주간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 합시다**

전조등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이고 손쉬운 수단이며 안전운전을 위한 팁이자 광주시민의 선진교통 매너입니다.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되며, 특히 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주변상황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교통상황 인지에 도움이 됩니다.  
\* 주간전조등이란? 주간시간(Daytime)대 운전시,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

**그럼 효과는?**  
교통사고 감소율 28%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연 1조2,500억원 감소 (09 교통안전공단)

**전조등은 언제 켜나요?**  
1년중 맑은 날 평균 97.3일 (기상청 통계 최근 10년)  
전조등은 비오는날, 눈오는날, 안개진날, 흐린날, 일출전이나 일몰시 등에는 반드시 켜고, 날씨와 시간에 관계없이 1년 365일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 우리나라 운전자 일몰시간대에 약 60%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

**연료비는 어느정도 비용대비 안전성 확보**  
시속 60km로 50km의 거리 주행시 0.1ℓ (약 200원) 소요

**해외 선진국은?**  
미국은 1960초 텍사스 주부터 주간 전조등 사용  
\* 180여개 사업용 운수업체 대상 현황 분석결과 38% 감소  
\* 캐나다 주정부 소유차 4,000여대 대상 연구결과 25%사고 감소  
\* 전조등 의무화 국가: 핀란드(1972), 스웨덴(1977), 노르웨이(1985) 덴마크(1990) 등  
\* 일본, 대만 이스라엘 의무화 검토중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